

2015년 특집 | 사명과 함께 하는 삶

‘장로’의 본분은 심부름꾼

키 작은 어르신 한 분이 주일 아침이면 식당에서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탁자를 닦곤 하신다.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으나, 선한 눈매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 한사코 인터뷰를 마다하시는 고효성 장로를 간신히 설득해서 난방 들어오지 않는 대화의 방으로 모셨다. 마스크를 벗자, 주름진 얼굴이지만 해맑은 복숭아빛 피부가 마치 소년 같았다. 1938년생이니 우리 나이로 올해 일흔 여덟. 적지 않은 연세인데도, 교회의 온갖 곳은 일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다.

추천을 해 주신 분의 말씀으로는, 전국 여러 곳에서 사셨다고요.

“평북 선천이 고향인데, 그곳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네 곳이나 있었고, 주일이면 온 지역 주민이 교회에 가는 까닭에, 오일장이 서지 못할 정도였지요. 월남한 뒤에 직장을 따라 옮겨다니다 보니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한 해 먼저 월남하신 아버지를 따라 열한 살 되던 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고향을 등지고 월남했다. 수용소에도 잠깐 있었다. 성장한 후에는 직장을 따라 전국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사는 곳이 바뀌

다 보니 교회도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고, 1975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다. 그 뒤에 강릉에서 한 10년 살았고, 잠실로 이사 와서 또 한 10년 살았다.

사명에 대한 오랜 신념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003년 생업으로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동안 십일조도 열심히 했고, 주일 성수도 잊지 않았지만, 그것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장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득, 장로의 헌법은 ‘몸으로 하는 봉사’라는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이는 장로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므로, 목사님보다 성도를 더 잘 알아야 하고, 더불어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퇴한 후, 작은 일이라도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동해, 남해, 대구, 천안, 강릉 등 전국 여러 곳의 작은 교회에서 종지기를 한다거나, 목회자를 도와 새벽 예배 교회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알았던 전도사가 시무하는 영월의 한 교회에서 3년간 봉사하기로 약



속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 헌당식도 올렸다. 하지만, 교회를 지은 자가 자칫하면 주인 노릇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 교회를 떠났다. 그 무렵, 이제 어딘가에 안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님의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006년 정신여중고 교목과의 인연으로 주님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으로 해외 선교를 다녔고, 호스피스 봉사도 한 7년 했지요. 중보기도팀, 상례팀, 4부 찬양대, 늘푸른대학, 주방봉사팀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교회가 밑거름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사명이라면, 통일이 된 후에 고향 선천

에 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는 데 주춧돌을 놓고 싶군요.”

세상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가 아니어서 밝히길 꺼려하지만, 1000시간 이상 봉사한 분들에게 주는 송파구 자원봉사자상을 받았고, 아산병원에서 1004 배지를 받기도 했다. 직접 농사지는 쌀을 독거 노인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이 소박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당신의 사명을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건강하기를,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선천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했다.

함글함글

〉 ‘2015년 교회 주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삶 가운데 사명의 본보기가 될 사례를 발굴하여 미니 인터뷰 형태로 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ㄱ

事件(사건)에 따른 節氣(절기)중 修殿節(수전절, 부림절)

예루살렘에 修殿節(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요한복음 10:22)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하고 유대 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에스더 9:26)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 修殿節(수전절) : 유대 마카비가 수리아의 셀류쿠스 군대를 격퇴하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淨化(정화)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BC

165년). 宗教曆(종교력) 9월(기슬르월) 25일부터 8일간 매일 촛불을 하나씩 점화하여 8일째는 8개의 촛불을 밝혔다.

② 부림절 : 포로기 당시 바사총리 하만의 유대인 몰살음모 때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용기 및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宗教曆(종교력) 12월(아달월) 14, 15일이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修(닦을 수. 고칠 수): 장소, 아득함, 위대함, 다스림'의 뜻을 지닌 攸(긋 유)와 '가지런함, 아름다움, 채색'의 뜻이 있는 𠂔(터럭 삼, 뺨친 석 삼)의 합자로 '형클어지고 깨뜨려진 곳

을 가지런하고 아름답게 닦아 고친다.'는 의미가 되었다.

★殿(대궐 전): 扃(볼기 기)의 변형체 展에 '몽둥이, 창, 무기, 도구'를 나타내는 𠂔(몽둥이 수, 갓은 등글월문방)을 합쳐 '볼기짜를 몽둥이로 쳐서 매 맞는 곳이 대궐이다'라는 뜻이 되었다. 진시황 때 만들어진 문자로 두려운 곳을 상징한다.

★節(마디 절):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7



선달 그림날 저녁
적십자병원 병상에서
설날 맞는 23분의 호스피스
환자분들께 어쩔 평생
마지막일 작은 선물
포장하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 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2015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로마에 갇힌 사도 바울 통한
하나님의 사랑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주님의 교회의 부활절 예배드라마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구성된다. “이번 예배드라마는 사도바울이 로마에 갇힌 시점에서 바울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사도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일 터입니다.” 올해에도 기획을 맡아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문규호 전도사의 말이다.

올해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예배에 초점

지난 2012년 주님의교회가 보여준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한국 교회에 드문 절기의 사례로 CBS 뉴스와 <목회와 신학>등을 통해 보도되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2013년에는 세대통합예배에 중점을 두고,

전 교인 온 세대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웃 초청 특별 예배를 드리기기도 했다. 작년에는 ‘연합함’이라는 의미에 더욱 비중을 두고 교회와 학교와의 연합된 모습으로 청년부, 아동부, 정신여중고 합창단이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재미’라는 요소를 통해 사도 바울의 어려운 삶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 성도들을 예배에 참여토록 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한 의상과 소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런웨이 형식으로 무대를 꾸며 관객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10장으로 구성, 바울의 선교와
사랑의 예수님

바울의 로마 선교와 이후 선교여행을 주된 골격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예배드라마는 모두 10 장으로 이루어진다. 프롤로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1장 ‘로마에 온 바울’, 2장 ‘스데반의 죽음’, 3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 4장 ‘제1차 선교 여행’, 5장 ‘제2차 선교 여행’, 6장 ‘제3차 선



로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그린 성화

교 여행’, 7장 ‘로마로 가는 길’, 8장 ‘노예 오네시모의 회심’, 9장 ‘사도 바울의 순교와 사랑의 예수님’, 10장 ‘사명과 함께 땅 끝까지’로 구성된다.

시각적인 요소에 많은 비중 두고,
연합 찬양대 함께 해

특히 올해에는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할 뿐 아니라, 무대 벽면전체를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연출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도 청년부와 아동부의 연합 찬양대가 예배드라마와 함께 한다. 또한 사명자 250명이 무대에 등장하여 결단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사명자대회 소식

사명자 대회 서약식

사순절 첫주인 2월 22일 주일에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의 첫 단계로 예수 친구사역 서약식이 진행되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시에 각교구 대표자들이 서약자대표로 서약을 하며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모두 오른손을 들고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에 동참하는 사명자로, 사명자 대회를 통한 ‘예수친구사역’ 훈련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 훈련과정의 겨자씨모임에 성실하게 임할 것, 이 기간 동안 매일 점검표에 따라 자신을 돌아볼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지상 명령에 힘쓸 것, “예수친구사역”이 추구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 시작과 과정과 끝을 친구 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서약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청년부 사명자대회 서약식

2015년 사순절을 맞아 교회 전체가 사명자대회를 시작함에 따라, 청년부도 교회 전체 서약식의 일정에 맞추어, 사명자대회 서약식을 가졌다. 박원호 담임목사와 함께 청년부 모두는 사명을 향한 40일의 여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다.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새롭게

이해하고 각 개인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더욱 분명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현재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이 이번 영적 여정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한다.

함글함글



2015년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일들

할 일 많으나 봉사자 크게 부족, 신규 사역자 환영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봉사 사역이 올해에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섬김과나눔의 목적사업은 늘푸른대학 운영, 무료급식 사업, 족 배달 사업, 특별구제 사업, 생명살리기 캠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 등이며, 후원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은 장애우 교육 및 돌봄 지원, 복지시설 및 구제기관 지원, 불우이웃돕기 행사 지원긴급구호활동 지원, 호스피스 활동 지원, 전화상담 지원, 녹색자연보호 활동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봉사자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함줄함울

사업팀	봉사 일자 / 시간 / 장소	팀장	연락전화번호
법인 사무국	매주 월-금요일, 주님의교회	정의영	010-5384-0305
늘푸른대학	매주 화요일, 09:30-15:00, 주님의교회	정원영	010-5339-6464
무료급식	매주 화요일, 10:00-14:00, 마천동 매주 수요일, 10:00-14:00, 마천동	강석인	010-3717-9485
족배달	매주 월, 10:00-13:00, 거여·마천동 매주 목, 10:00-13:00, 거여·마천동	이형구	010-3711-3940
특별구제	매주 월-금요일, 주님의교회	노대홍	010-5025-99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매주 월-금요일, 마천동	김숙정	010-9984-4755
건강가정지원센터	매주 월-금요일, 거여동	박연진	010-8347-3444
가락본동어린이집	매주 월-금요일, 가락본동	윤영란	010-7124-5816

사역간증

천사들이 사는 곳, 가평 루디아의 집

2015년 2월 9일(월), 아침 9시 16분, 상봉역. 춘천행 열차 맨 앞 칸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 둘 모이자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었다.

“오늘 춘천 호스피스에 가세요?”

“아니요. 저는 매월 둘째 월요일은 가평 루디아의 집에 가요.”

지난 해 12월 둘째 월요일, 처음으로 그곳에 갔다. 잠긴 현관문에 매달려서 환호하며 우리를 맞아주던 이름 모를 두 소녀가 있었다.

“고모, 보고 싶었어. 나. 이빠?”

같은 말을 수없이 되풀이 하며 생전 처음 보는 나에게 매달리고 포옹을 기다리는 두 소녀. 그들을 어색하게 껴안으며 중증장애인의 첫 대면에 불안해 하던 내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러웠다. 이들은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데 나는 두려워하여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사람들로 생각했구나.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3층 여자생활관을 돌며 발마사지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소녀들이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거나 엎드려 있었다. 발을 만지면 괴성을 지르지 않을까?



발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 처음 발을 만질 때는 긴장하여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었던 발가락이 아로마 향이 퍼지고 손길이 거듭될수록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차가웠던 발바닥이 따뜻하게 될 무렵 소녀들의 얼굴에 번지는 천사를 닮은 해맑은 미소! 이 세상 어느 미소가 이보다 더 아름답고 순수할 수가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잠시 스쳐가는 내 손길이 그들에게 주는 행복보다 천사의 미소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차오르는 감동이 더 많은 것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리라.

첫 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기도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 소녀들에게 향하는 나의 첫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이 발걸음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소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진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수성을 갖게 하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매달 둘째 월요일 아침 9시 16분, 상봉역에서 춘천행 기차를 타고 가평 루디아의 집에 천사들을 만나러 간다.

이성자 집사/호스피스팀

로템나무

미생

요즘 유행어가 된 미생

얼마전 지상파 방송국에서 연속극 미생이 많은 시청자의 관심 속에서 끝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 속엔 그 잔영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주인공 장그래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남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성실과 노력, 뛰어난 감각으로 실적도 올렸지만 결국 스펙이 안된다는 이유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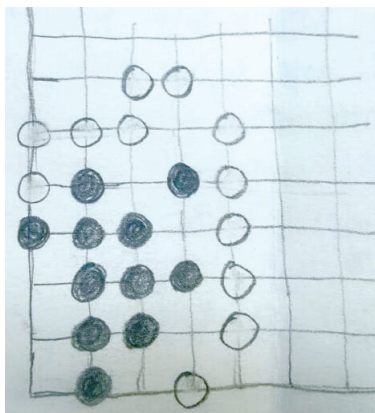
직장 생활의 고충을 보면서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저러지 싫어서 참 안쓰러웠다. 결국 완생은 없다는 서글픈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씁쓸함을 남겨 주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미생의 시드롬 속에 '나도 장그래'라고 신음하고 있다.

미생 · 사생 · 완생

이는 원래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다. 미생은 완생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수다. 2013년 늘푸른대학에 등록하면서 바둑반을 택했다. 바둑에는 문외한인 나는 호기심만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내 선택은 아주 훌륭했다.

이창호의 책을 찾아 읽고 바둑판에 바둑알을 이리 저리 놓아보고



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배웠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지 어언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를 준비하고 있다. 무료한 시간을 혼자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 누구에게나 권할 만하다.

책을 보면서 바둑판 위에 흑과 백의 바둑알을 번갈아 놓으면서 어떻게 어디다 놓아야 살아날까, 집도 만들어야지, 그렇게 머리를 굴리다 보면 다 죽을 것 같은 집이 살아나고, 완생이라고 자신했던 집이 한수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신묘 막측한 묘미를 맛 볼 수 있다. 여러분도 바둑의 매력에 빠져 보지 않으시려는지? 바둑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자 집사, 권사님들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많은 도전을 권한다.

조옥실 권사/늘푸른대학 바둑반

목회 칼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기를

벌써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한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수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선포한 말씀과 자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을 심방다니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축하하는 곳으로, 슬픈 곳으로, 감사한 곳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그런데 요즘 불현듯, 내가 전하고 있었던 말씀에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며 목사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쳤던 그 말씀이 메아리처럼 제게 다가와서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의교회를 떠나야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가끔 힘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서는 나에게 다음 가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데 요즘 나의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목사인 저로써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기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 동안 주님의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내게 익숙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귀한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도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에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에게 분명 또 다른 사역의 장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심방을 하게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제가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확실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을 알아 참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합니다.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정현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3

순국열사 김마리아



김마리아의 파크대학 졸업사진

김마리아는 1892년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소래마을)에서 태어났다. 1910년 정신여학교를 4회로 졸업하고 1913년 정신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1915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여자학원에서 유학하였다. 1919년 2·8 독립선언대회에 참가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귀국하여 3·1운동이 일어나자 급거 귀경하여 동지들과 항일부녀단체조직을 논의하였다. 3월 6일 정신여학교 교무실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혹심한 고문과 심문을 당하였다.

그해 10월 일제하 항일최대여성비밀단체인 대한민국의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피선되었고, 대한민국의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일경에 다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 중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22년 대한민국의임시정부 의정원 황해도 대의원으로 피선되었고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가 파크대학, 콜롬비아대학, 뉴욕 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뉴욕에서 여성항일단체인 근화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1932년 형기 만료로 귀국하여 거주 제한으로

원산 마르다월슨여자신학원 교수로 시무하였다. 193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연임하였고, 1944년 3월 13일 5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해방 후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순국열사 김마리아를 향하여 도산 안창호는 "김마리아 같은 여성동지가 10명만 있었던들 한국은 독립이 됐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고, 춘원 이광수는 <누이야>라는 제목의 시에서 "김마리아는 영원한 조선"이라고 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보령 성광교회에서 온 편지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 잘 돌보겠습니다

주님의교회 여러분께서 와서 저희 교회 교육관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감동 감화로 하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목회 여정에 여러분 들을 뵙는 은혜가 바로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정말 고귀하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집사님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여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고백하게 되었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21세기를 맞는 다음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을 잘 돌보고 훌륭하고 건강한 주님 기뻐하는 인재들이 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힘과 비전과 희망과 용기와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고 계십니다. 몇 시간 후면 서울로 출발하실 텐데 여러분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뒷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저의 뒷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일 수 있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만난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제 가슴에 불을 던져 놓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늘 챙기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유재운 목사 올림



지난 겨울 국내선교팀과 여러 성도들이 방문해서 교육관의 벽면과 바닥 등 내부 공사를 마친 보령 성광교회에서 보내온 감사의 글입니다. 현물로, 현금으로, 또 직접 현장에서 땀흘려 애쓴 여러 성도들의 노고로 귀한 은혜의 관계 맺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사역 탐방

주님의교회 이미용팀 3월 기도회



주님의교회 이미용팀 2015년 3월 기도회가 3월 5일(목) 홍성욱 목사님을 모시고 3층 성경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미용으로 봉사를 드리는 섬김 자체가 특정한 모임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기술이 필요한 봉사자들이 봉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베푸는 섬김이다.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사역은 봉사를 마치면 그만이었는데 이미용 봉사는 혹 봉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많은 봉사이다.

홍성욱 목사는 말씀을 통해 봉사자 한 분 한 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현장에 다가가기를 기도드렸다. 7년의 역사를 가진 이미용팀은 매주 월요일 10:30분부터 15:00까지 미용부실에서 이미용 실기를 익히며 요양원과 탈북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쉼터와 다문화 외국인 하남문화센터 등에서 이미용 봉사를 한다.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

함줄함줄

알립니다

▶ 해외선교 비전트립팀을 모집합니다. 케냐 (7/30~8/9, 15명) 헝가리 (7/20~30, 청년10명 포함하여 15명) 키르기즈스탄(7월초, 20명) 베트남 (7/29~8/3, 25명)입니다.

접수 : 3/29까지 매 주일 교회1층 로비

▶ 베트남어 기초반 무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1회 12강으로 진행됩니다.

개강 : 3/7(토) 오후 5:00~6:30 교육관 411호

강사 : 이강우 교수 (현 EBS강사, 입에서 톡 베트남어 저자)

▶ 유소년축구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 3/8 ~ 6/28 (15주) / 회비 : 6만원 / 접수 : 1층 사무실 (010-3717-9485)

▶ 뮤직아카데미 15기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접수: 3/13까지 / 개강: 3/14 ~ 6/28 (16주)

과목: 기타, 피아노, 드럼, 보컬, 베이스, 바이올린, 앙상블(합주)

▶ 사랑의 수화교실 3기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일정 : 2015년 3월1일(주일)부터 6개월간

장소 : 주님의교회 지하1층 대화의 방

문의 : 서옥숙 집사(010-5440-2260)